

# 한국과 중국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and Chinese Women  
Who Are Employed and Married

중국 연변대학교  
강사 안화선\*\*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김경신\*\*\*  
Yanbian Univ., China  
Lecturer : An, Hua-Shan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Kyeong-Shin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Korean, Chinese-Korean, and Chinese women who are both married and employed, and it offers suggestions based on this examination for how to improve these women's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we employ both empirical and comparative research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ese three groups of women between variables such as cultural orientations, life satisfactions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For these objectives, 263 Korean women, 265 Chinese-Korean women and 280 Chinese women were surveyed.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we consider subjective quality of lif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factors such as self-esteem, cultural inclination and life satisfac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we find that most of variables record relatively higher than middle score. Comparisons among the three groups find that every variable shows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cept for the non-economic reasons for employment.

Second, in examin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different variables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we observe that both job satisfaction and family-life satisfac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for women in all groups. For Korean and Chinese women, job satisfaction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than family-life satisfaction.

---

▲주요어(Key Words) : 기혼취업여성(women who are employed and married), 주관적 삶의 질(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

\* 이 논문은 주저자의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발췌 및 재작성한 것임.

\*\* 주저자 : 안화선 (E-mail : anhs77@hotmail.com)

\*\*\* 교신저자 : 김경신 (E-mail : kks@chonnam.ac.kr)

## I. 서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사회전반적인 양성평등의식 확산 등에 힘입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의 참여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전통과 근대라는 양대 문화체계의 교차점에서 여성, 특히 기혼취업여성들의 역할 변화는 상당한 개인적, 가족적 어려움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즉 기혼취업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역할과중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역할갈등, 역할과중으로 인한 기혼취업여성들의 스트레스는 여성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삶의 질은 줄곧 특정 사회 내지는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능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삶의 질 자체의 의미가 광범위하고 구성요소 또한 다양하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삶의 질 측정은 그 평가대상 및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객관적 조건을 기준으로 한 삶의 질 평가보다는 이러한 조건들을 개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조명한·차경호, 1999; Diener, 1984; 王凱·周長城, 2004).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 기혼취업여성들의 삶의 질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변인, 남편의 지지도,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여가만족, 의사소통 효율성, 가사노동분담이 가정생활만족도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거나(강기연, 2000; 조혜정, 1994; Mokgatthe, 1998), 근무시간 윤희성, 취업동기, 직무만족도 등 직업관련 변인과의 관계된다는 주장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김지은, 2006; 박은아, 2003; 심혜선, 2001). 또한 여성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기초 원인으로 가부장적 가족가치관과 유교문화로 인한 성역할 불평등 등 문화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나(조혜선, 2003), 이러한 가치관, 문화 등 거시적 차원의 영향력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문화 비교는 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성향에 있어서의 차이를 찾는 데 핵심을 두었으며, 그나마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녀 역할 분리 의식이 뚜렷한 유교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유사문화권에서 관련의식과 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봄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과 문화적 성향이 비슷하고, 한국 동포인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은 유사한 문화권 국가 비교의 대상으로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의 종주국으로 한국과 유사한 문화적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한국과는 달리 신 중국 건립(1949) 이후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남녀평등사상이 공공연히 강조되었으며 이는 교육, 취업, 정치참여, 사회복지 등 제반 영역들에서 폭넓게 반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사회에 잔재되어 있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여성들도 한국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張倍芬, 2006).<sup>2)</sup> 한편으로 제외한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조선족의 경우에는 모국의 생활습관, 언어, 가족의식 등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어 가정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 영역 모두에서 성역할 불평등이 한족들에 비해서는 심각한 형편이다(김경신, 2005; 김경신·이선미, 2007). 그들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의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어찌 보면 중국의 본토민족인 한족과도 다르고 모국의 한국인과의 서로 다른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패턴 및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성이 조선족 취업여성들의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 양상에서도 한국여성, 그리고 중국 한족과도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중국(한족, 조선족)과 한국 기혼취업여성들의 삶의 질, 그 관련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고, 상이한 문화패턴 속에 존재하는 기혼취업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간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관련 변인, 직업관련 변인, 심리적 변인, 문화적 변인이 각각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문화의 개념을 '국가문화'의 시각, 즉 사람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해석하고 교류하고 평가하도록 고안된 일정한 패턴 안의 가치, 태도, 신념, 기타 의미 있는 상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Hofstede의 국가문화이론과 모델, 그중에서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화유형을 판별하는 기준을 찾고자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기혼취업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근로가치관, 문화 성향 등 관련변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비교 문화적 관찰을 통해 취업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가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제외한인으로서 조선족여성들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접근의 기회가 되리라 본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70년 39.3%에서 2006년 50.2%로 증가되었다. 특히 여성취업자 중 기혼 여성이 상당비율을 차지하는데 2006년의 경우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75.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7).

2) 통계에 의하면 2000년 국가 구조조정 시 여성 실업률은 남성들보다 6.6% 더 많았고, 재취업에서도 연령 혹은 성차별을 호소하는 여성이 전체 재취업 여성 중 49.7%로 남성들보다 18.9%가 많았다(張倍芬, 2006). 또한 가사노동시간에서도 중국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들보다 2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연구문제 1> 한국과 조선족, 한족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집단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조선족, 한족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주관적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사회복지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 개념자체의 속성이 복잡 모호하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의 개념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Farquhar, 1995). 삶의 질은 물질적/비물질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외형적인, 내면적 심리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의 발전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박현옥·이한나, 2006). 따라서 '삶의 질' 개념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주관적 평가로서 안녕 혹은 복지(well-being), 행복(happiness)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Diener, 1984; Rice, 1984),

이런 삶의 질의 측정은 크게 객관적 조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객관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평가를 중요시하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영역을 강조하는 연구시각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환경이나 조건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생활수준, 평균수명, 국민들의 취업기회와 직업선택의 다양성, 교육기회와 여건, 문화시설, 의료보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삶의 질 평가에 대한 외적 조건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객관적 기준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차지하는 변량은 10%미만 또는 최다 15%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조공호, 1995; Diener, 1984).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객관적 조건보다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을 개인이 어떻게 판단, 인지 및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세우며 주관적 평가를 통한 삶의 질 측정을 강조하고 있다(Diener, 1984). 즉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서 개인이 자신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삶의 질 측정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평가에 따른 삶의 질의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은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만족감', '행복감' 등 다양한 용어로 접근하여 왔다(김명소 등 2001). 특히 일부 심리학자들은 주관적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태도로써 기본적으로 인지적·정서적 요소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지적 측면의 삶의 질은 장기적인 기간의 사람의 느낌을 반영하고, 또한 의식적인 사람의 목표·가치 등을 측정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의 무의식적 동기, 생리적 상태의 영향을 고려한 느낌 등은 정서적 측면만으로 측정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ener(1984)의 정의를 근거로, 주관적 삶의 질을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인지적 평가란 인간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전반적 삶에 관한 주관적 만족을 의미하며, 정서평가란 긍정적, 부정적 양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인 경우는 개인의 환경에 관련한 즐거운 수준으로, 부정적인 경우는 긴장, 슬픔, 우울, 짜증등 주관적 고통의 일반적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로는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연령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경숙, 1997; 김정자 등, 1998)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Spreitzer & Snyder, 1974). 소득의 측면에서는 이현송(2001)의 경우 개인 혹은 가정 소득이 기혼취업여성의 행복감과 상관이 있으며, 소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는 소득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수준에 관한 일부 연구들은 삶의 질과 교육수준은 그 상관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소득수준을 통제하면 교육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Spreitzer & Snyder, 1974). 그러나 많은 국내 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이명진, 1997; 이수애, 1999).

#### 2)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과 삶의 질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변인들이 주로 외향성, 낙관주의,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등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매우 강한 상관성이 있는 인성적 특성으로 조사되었다(차경호, 1995; Suh&Diener, 2000).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여정희 2004; 차경호,

2004; Lucas et al., 1996).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사건은 잘 받아들이지만 부정적 사건은 상쇄하거나 제한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경험으로부터는 혜택을 취하지만 부정적 경험은 덜 반응한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은 잘 받아들이거나 그 긍정성을 상쇄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부정적 사건은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해석을 내려 반응한다(신선미, 2004). 조옥희(2004)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이경화(2003)는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Mokgatthe(1998)는 성역할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근대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지닐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irowsky(1985)와 Pleck(1985)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 때,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 3) 직업 변인

직업은 사회·경제 상태의 주요 구성 요인의 하나로 인간의 태도와 활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복감,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취업여성의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의 상관성이 검증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석, 1996; 이수애, 1999). 또한 어떤 목적으로 취업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게 측정된다(이정현, 2000). 경제적 동기로 취업할수록 직장 및 가정생활에서 더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비, 1999; 정혜정, 1994). 주당 실제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이연숙 등, 1991), 근무시간 보다 근무시간 융통성이 생활만족에 더 큰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서정아·한경혜, 1998; 이연숙 등, 1998). 그 외에도 Compton(2001)은 근로가치관은 그 범위가 광범위 하지만 주관적 삶의 질과 복잡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박경혜(2004)의 연구에서도 근로가치관이 인지 평가, 긍정적 정서평가, 부정적 정서평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가족 변인

가정생활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매우 높다(Cambell, 1981). 가영희(2006)의 연구에서도 가정생활만족도가 주관적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서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향상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가족원들 사이에 모든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지 평가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인지 평가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정구, 2006; 장재호, 2003). 또한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부부관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김경신·김오남, 1996; 송혜림, 2000),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 평가가 높으며, 우울을 적게 겪고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정현숙, 1997). 또한 가계소득에 대한 만족 역시 인지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조사 되었다(강기정, 2005; 고정자, 1998).

가족가치관과 긍정적 정서평가, 부정적 정서평가에 대한 연구로서는, 가족가치관과 인지 평가에 관한 박경숙(1993)의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인지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 5) 문화 변인

문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국가문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써 각국의 언어, 종교, 규범, 제도 및 의식주를 둘러싼 생활방식을 일컫는다(최두민, 2003). 즉,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해석하고 교류하고 평가하도록 고안된 일정한 패턴 안의 가치, 태도, 신념 및 기타 의미 있는 상징을 말한다.

국가간 문화적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 Hofstede의 국가문화이론과 모델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문화이론이다(양진성, 2003). 특히 그가 제시한 여러 문화차원 중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은 서로 다른 문화 유형을 판별함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Hofstede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으로 일직선상의 양 끝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Triandis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즉, 집단주의라고 분류되는 사회에도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개인주의로 분류되는 사회에도 집단주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조국호, 1996; Triandis, 1995). 그리하여 Triandis(1995)는 Hofstede의 개인/집단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직/수평성을 별개의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Triandis의 연구에 따르면,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자율적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이 크다.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를 비슷하다고 여기며,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반면에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하며, 서로간의 위계질서를 확고히 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Triandis & Gelfand, 1998).

국가간 비교를 통한 문화성향과 주관적 삶의 질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의 경우, 문화성향이 주관적 삶의 질 평가에 있어서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며(조명한·차경호,1999; Diener, 1984; Suh & Diener, 1999), 또한 문화성향에 따라 삶의 질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조공호, 1996, Diener & Suh, 2000). 일반적으로 서구 국가들이 동양국가들(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고(차경호,1996), Bettencourt 와 Dorr(1977)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에 비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유배우 취업 여성을 조사대상자로 하되, 국가별로 중국연변조선자치주 내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 330명, 한족 380명, 한국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유배우자 기혼취업여성 320명을 임의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한국 263부, 조선족 265부, 한족 280부 모두 808부가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에서 3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 여성이며, 교육수준은 한국과 조선족의 경우 대졸이 각각 55.5%, 5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한족은 고졸이상이 56.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업은 한국의 경우 사무직 및 관리직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및 자영업 21.7%, 단순노무직 및 기술직 13.7%의 순이며, 중국 조선족의 경우, 전문기술직 및 전문직이 44.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사무직 및 관리직 34.0%, 서비스 및 자영업 14.7%의 순이다. 한족의 경우는 서비스 및 자영업, 전문기술직 및 전문직에 종사자는 각각 28.9%, 29.3%로 비슷하게 많았으며, 단순노무직 및 기술직 26.4%, 사무직 및 관리직 15.0%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고루 분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08)

항 목	구 분	한국 N(%)	중국 조선족 N(%)	중국 한족 N(%)	
연 령	20대 이하	17( 6.5)	12( 4.5)	23( 8.2)	
	30대	120(45.6)	131(49.4)	116(41.3)	
	40대	103(39.2)	101(38.1)	103(36.8)	
	50대 이상	23( 8.7)	21( 7.9)	38(13.6)	
학 력	고졸 이하	79(30.1)	92(34.8)	159(56.8)	
	대 졸	146(55.5)	154(58.1)	110(39.3)	
	대학원 이상	38(14.4)	19( 7.2)	9( 3.2)	
소 득	100만원 미만	1000위엔 미만	77(29.3)	28(10.6)	54(19.3)
	101-200만원	1001-1500위엔	98(37.3)	109(41.1)	98(35.0)
	201-300만원	1501-2000위엔	58(22.1)	89(33.6)	68(24.3)
	301-400만원	2001-2500위엔	17( 6.5)	30(11.3)	40(14.3)
	400만원 이상	2500위엔 이상	11( 4.2)	9( 3.4)	20( 7.1)
직 업	단순노무직및 기술직	36(13.7)	15( 5.7)	74(26.4)	
	사무직 및 관리직	89(33.8)	90(34.0)	42(15.0)	
	서비스 및 자영업	57(21.7)	39(14.7)	81(28.9)	
	전문기술직 및 전문직	67( 8.0)	118(44.5)	82(29.3)	
	기 타	11( 4.2)	3( 1.1)	1( 0.4)	
자녀수	없 음	22( 8.4)	14( 5.3)	47(16.8)	
	1 명	55(20.9)	217(81.9)	177(63.2)	
	2명 이상	186(70.7)	33(12.5)	56(20.0)	
결혼기간	10년 미만	89(33.8)	54(20.4)	100(35.7)	
	10이상-20년	122(46.4)	141(53.2)	47(16.8)	
	20년이상-30년	41(15.6)	67(25.3)	121(43.2)	
	40년 이상	4( 1.5)	3( 1.1)	11( 3.9)	
	평 균	13.62	14.37	16.55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총 100% 안되는 것은 결측치임.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한국과 조선족은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고 한족은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사회인구학적변인 · 심리적 변인 · 직업변인 · 가족변인 · 문화성향 변인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주관적 삶의 질의 경우 하위요인으로 인지 평가, 긍정적 정서평가, 부정적 정서평가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1) 주관적 삶의 질

인지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사용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달성해 왔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더라도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등의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총점수의 범위는 5-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평가가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한국 .84, 조선족 .85, 한족이 .71이었다.

정서평가는 긍정적 정서평가와 부정적 정서평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정서평가는 '편안함', '기쁨', '보람' 등 6문항, 부정적 정서평가는 '슬픔', '짜증남', '미움'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전혀 느끼지 않음' 1점에서 '매일 느낌' 5점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응답 가능한 점수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긍정적 정서평가에서 한국, 조선족, 한족 각각 .92, .86, .74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평가에서 한국 .87, 조선족 .84, 한족 .88로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교육수준, 직업 종류, 월평균 수입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단일문항 선택, 직접기입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 3) 심리적 변인

먼저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SES; Self-Esteem Scale)를 최미례(2000)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자기와 관련된 진술문 10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82, 조선족 .60, 한족 .67이다.

성역할 태도는 Mason(1975)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이선미(1995)가 수정한 척도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88, 조선족 .81, 한족 .81이다.

### 4) 직업 변인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mith, Kendall & Hulin, (1969)에 의해 개발되고, 김상균(2006), 엄준하(200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두 7개의 하위요인, 15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15점-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한국 .85, 조선족 .86 한족 .75로 나타났다.

취업동기는 서지원(1997)의 연구를 참고로 9문항으로 작성 하였다. 역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취업동기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비경제적 취업동기에서 한국, 조선족, 한족이 각각 .75, .72, .75였으며, 경제적 동기는 각각 .77, .71, .75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유통성은 구혜령(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출장을 거부하는 것이 용이하다' 문항이 예비검사에서 신뢰도가 떨어져 제외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다소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역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유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84, 조선족 .79, 한족 .67로 나타났다.

근로가치관은 신유근(199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역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으면 인간관계 중심 가치관이 강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조사도구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조선족, 한족이 각각 .63, .62, .66으로 나타났다.

### 5) 가족 변인

가정생활만족도는 Burr(1979)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임정빈(1988), 박은아(2003)가 8개 항목,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만족정도는 5점 Likert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는 17점에서 8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조선족, 한족 각각 .88, .86, .75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만족도는 단일 문항 형식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소득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내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은 Olson(1983), 김지은(2006)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89, 조선족 .85, 한족 .82로 나타났다.

여가만족은 Bagheb(1980)가 제작한 설문지를 토대로 한 김영아(2005), 양광희(1999), 이은정(2006)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역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여가 생활에 대하여 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82, 조선족 .79, 한족 .75로 나타났다.

가사노동분담은 김영혜(200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반적인 분담에 대한 만족과 의식주 및 기타생활로 나누어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6점~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분담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88, 조선족 .85, 한족 .75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은 김경신(2005)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11개의 하위영역,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는 한국 .77, 조선족 .74, 한족 .70으로 나타났다.

6) 문화성향 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변인은 문화적 성향으로서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가 제작한 INDCL(Individualism-Collectivism)척도를 김기범(199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등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 하위요인별 각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수평적 집단주의에서 한국 .74, 조선족 .82, 한족 .81로, 수직적 집단주의에서는 한국 .77, 조선족 .74, 한족 .57로, 수평적 개인주의에서는 한국 .84, 조선족 .80, 한족 .76으로, 수직적 개인주의에서는 한국 .80, 조선족 .78, 한족 .7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는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기혼취업여성을 임의 표집 하였으며, 2007년 9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국 광주광역시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연길, 용정, 화룡, 도문, 왕청, 훈춘)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족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1030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08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Window용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기초통계, Chronbach's  $\alpha$ , Pearson's r 등이 산출되었고 ANOVA, Scheffé test, 표준중다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관적 삶의 질 및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한국, 조선족, 한족의 주관적 삶의 질 및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세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삶의 질의 경향 및 집단간 차이

인지 평가의 경우, 평균점수가 한국 3.22점, 조선족 3.58점, 한족 3.43점으로 모두 중간 점수 3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표 2> 주관적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 및 집단간 차이

(N=808)

변 수	국 가	사례수	평균(SD)	F값	Scheffé
인지 평가	한 국	263	3.22(.79)	15.74***	B
	중국 조선족	265	3.58(.82)		A
	중국 한족	280	3.43(.63)		A
긍정적 정서 평가	한 국	263	3.40(.89)	7.92***	B
	중국 조선족	265	3.59(.85)		A
	중국 한족	280	3.68(.68)		A
부정적 정서 평가	한 국	263	2.56(.77)	9.38***	A
	중국 조선족	265	2.29(.70)		B
	중국 한족	280	2.53(.81)		A

\*\*\*p<.001

나타났다. 이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영희(2006), 육근영(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세 집단 기혼취업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게 인식,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혼취업여성의 인지 평가 평균은 조선족과 한족 기혼취업여성들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5.74, p<.001$ ).

긍정적 정서평가의 경우, 한국의 평균 점수는 3.40점, 조선족 3.59점, 한족 3.68점으로 나타나,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명소(2003)의 연구에서의 긍정적 정서평가 평균 4.12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세집단 여성들은 삶에서 '기쁨', '보람'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1주일에 한번 이상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집단별 차이 검증결과, 한국 기혼취업여성과 중국 조선족 및 한족 기혼취업여성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어( $F=7.92, p<.001$ ), 한국여성들이 중국내 여성들보다 긍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평가의 경우, 평균 점수는 한국 2.56점, 조선족 2.29점, 한족 2.53점으로, '슬픔', '짜증남' 등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1주일에 한번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명소(2003)의 부정적 정서평가 연구결과 3.19점 보다 낮다. 집단별 차이 검증결과, 한국 중국 한족집단과 중국 조선족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38, P<.001$ ).

한국여성은 인지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낮은 긍정적 정서평가, 높은 부정적 정서평가 등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한족은 긍정적 정서평가나 부정적 정서평가가 모두 비교적 높은 편으로 삶의 질 평가에서 정서적인 지각 측면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2) 심리적 변인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한국은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족 3.50점, 조선족 3.01점의 순위를 나타내어 세집단

<표 3>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의 일반적 경향과 집단간 차이

(N=808)

변 수	국 가	사 례 수	평균(SD)	F값	Scheffé
자아존중감	한 국	263	3.69(.53)	155.10***	A
	중국 조선족	265	3.01(.38)		C
	중국 한족	280	3.50(.46)		B
성역할 태도	한 국	263	2.25(.67)	42.24***	C
	중국 조선족	265	2.60(.68)		B
	중국 한족	280	2.77(.69)		A

\*\*\*p<.001

<표 4> 직업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집단간 차이

(N=808)

변 수	국 가	사 례 수	평균(SD)	F값	Scheffé
직무만족도	한 국	263	3.28(.60)	12.50***	B
	중국 조선족	265	3.44(.60)		A
	중국 한족	280	3.21(.41)		B
주 실제 근무시간	한 국	263	43.55	7.03***	B
	중국 조선족	265	44.28		B
	중국 한족	280	47.04		A
경제적 취업동기	한 국	263	3.45(.96)	5.42***	A
	중국 조선족	265	3.18(.87)		B
	중국 한족	280	3.34(.84)		AB
비경제적 취업동기	한 국	263	3.32(.79)	.75	
	중국 조선족	265	3.38(.68)		
	중국 한족	280	3.30(.62)		
근무시간 융통성	한 국	263	2.98(.95)	3.38*	B
	중국 조선족	265	3.12(.84)		A
	중국 한족	280	3.13(.59)		A
근로가치관	한 국	263	2.98(.43)	33.15***	C
	중국 조선족	265	3.17(.45)		B
	중국 한족	280	3.28(.45)		A

\*p<.05, \*\*p<.01



<표 5> 가족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집단간 차이

(N=808)

변 수	국 가	사례수	평균(SD)	F값	Scheffé
가정생활만족	한 국	263	3.31(.67)	22.38***	C
	중국 조선족	265	3.65(.57)		A
	중국 한족	280	3.50(.48)		B
가계소득만족	한 국	263	2.87(.91)	21.32***	C
	중국 조선족	265	3.07(.97)		B
	중국 한족	280	3.10(.74)		A
의사소통	한 국	263	3.53(.84)	11.33***	B
	중국 조선족	265	3.82(.74)		A
	중국 한족	280	3.63(.78)		B
여가만족	한 국	263	3.03(.91)	24.16***	B
	중국 조선족	265	3.48(.85)		A
	중국 한족	280	3.44(.71)		A
가사노동 분담	한 국	263	3.24(.75)	9.79***	B
	중국 조선족	265	3.60(.86)		A
	중국 한족	280	3.41(.76)		AB
가족가치관	한 국	263	2.72(.45)	62.37***	B
	중국 조선족	265	3.17(.49)		A
	중국 한족	280	3.08(.50)		A

\*\*\*p<.001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있다. 다만 사후검증 결과 세 집단간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55.10, p<.001).

성역할 태도의 경우, 세 집단 모두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 태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F=42.24, p<.001), 한국 기혼취업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가장 근대적이고 다음으로 조선족, 한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한국과 중국 모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유교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서구화와 근대화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의식수준 변화의 속도가 한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직업 변인

직무만족도의 경우, 세 집단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인데, 평균 점수는 한국 3.28점, 중국 조선족 3.44점, 한족 3.21점이었다. 사후검증결과 한국과 중국 한족이 중국 조선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50, p<.001). 주 실제근무시간의 경우, 일주 근무시간을 7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은 43.55시간이었으며, 이는 전국 기혼취업여성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45.3시간(통계청, 2006)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은 44.28시간, 한족은 47.04시간으로 중국 법적으로 규정된 평균노동시간 44시간(노동부장부, 2006)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검증결과 중국 한족과 한국 및 중국

조선족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7.03, p<.001).

경제적 취업동기의 경우 세집단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인데, 평균 점수는 한국 3.45점, 중국 조선족 3.18점, 중국 한족 3.34점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여성과 중국 한족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42, P<.001). 이는 한국 기혼취업여성들이 중국 여성들에 비하여 경제적 이유로 취업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비경제적 취업동기의 경우, 평균 점수는 한국 3.32점, 조선족 3.38점, 한족 3.30점으로 역시 중간점수 3점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 율통성에서는 한국은 보통 이하 평균점수로 2.98점이고, 조선족은 3.12점, 한족은 3.13점이었다. 집단간 차이검증결과 한국과 중국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38, p<.05). 이는 중국 기혼취업여성의 근무시간 율통성이 한국 기혼취업여성의 근무시간 율통성 보다 더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근로가치관도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3.15, p<.001), 한족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선족, 한국 순이다. 이는 한족이 인간관계 중심 근로가치관의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규만(2006), 유병주(2000)의 한국과 중국 근로자의 근로가치관의 비교 연구에서도 국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4) 가족 변인

가정생활만족도의 경우 세집단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중국 조선족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 한족, 한국의 순위였으며,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38, p<.001). 가계소득만족의 경우, 한국은 보통 이하 수준인 반면 한족의 평균점수가 3.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선족의 순위였다.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1.32, p<.001). 가계소득면에서는 한족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가정생활만족도에서는 조선족이 가장 두드러지며 한국 여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 만족도가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의 경우, 다른 변인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평균 점수는 조선족 3.82점, 한족 3.63점, 한국 3.53점이었다. 집단간의 차이 검증 결과 중국 조선족과 다른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1.33, p<.001). 여가만족 역시 세집단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사후검증 결과 한국과 중국(조선족, 한족)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16, p<.001). 이를 보면 한국여성은 가족 생활 관련 만족도가 공히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중국 조선족은 가계소득 만족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관련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가사노동 부담의 경우 한국, 조선족, 한족 모두 중간 점수 3점보다 다소 높았다. 사후 검증결과 한국과 중국 조선족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79,

p<.001). 이는 한국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미경(2002), 조혜선(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아직까지 가사노동에서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한국여성은 전통사회와 비교할 때 미미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가치관에서도 한국과 중국내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F=62.37, p<.001), 한국여성이 중국 여성에 비하여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김경신(2006)이 한국여성과 조선족여성의 가족가치관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 가계소득만족, 여가만족 영역에서 한국 기혼여성들의 평균 점수는 중국 기혼여성들보다 낮게 나타났고,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근대적인 가치관은 가사노동 부담이나 여가만족, 의사소통 등에서의 평등적, 상호소통적 기대치를 유발시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5) 문화성향 변인

본 연구에서 문화성향의 4개 하위요인별로 세 집단간의 차이를 본 결과 다음의 <표 6>과 같다.

집단별 문화성향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고 다른 문화성향들 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중국 조선족은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표 6> 국가별 문화성향의 차이

(N=808)

문화유형	한국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평균(SD)	Scheffé	평균(SD)	Scheffé	평균(SD)	Scheffé
수평적 집단주의	3.71(.53)	A	4.01(.58)	A	3.85(.67)	A
수직적 집단주의	3.53(.60)	B	3.99(.82)	B	3.71(.55)	AB
수직적 개인주의	3.12(.67)	B	3.45(.68)	D	3.62(.60)	B
수평적 개인주의	3.49(.71)	B	3.81(.69)	C	3.81(.64)	A
F값	F=43.87***		F= 34.29***		F=7.76***	

\*\*\*p<.001

<표 7> 문화성향별 국가간 차이

(N=808)

집 단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평균	Scheffé
한 국	3.71	C	3.55	C	3.15	C	3.48	B
중국 조선족	4.01	A	3.99	A	3.45	B	3.79	A
중국 한족	3.85	B	3.71	B	3.62	A	3.81	A
F값	F=16.16***		F=24.20***		F=37.13***		F=19.07***	

\*\*\*p<.001

<표 8> 기혼취업여성의 인지 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 국		조선족		한 족	
	B	$\beta$	B	$\beta$	B	$\beta$
학 령	.01	.01	-.10	-.07	.03	.04
연 령	.00	.02	-.00	-.01	-.00	-.06
본인 소득	.04	.05	.05	.06	-.01	-.02
남편 소득	.04	.06	-.02	-.03	.01	.03
자아존중감	.34	.23***	-.13	-.06	.00	.00
성역할 태도	.06	.05	-.01	-.01	.21	.23**
주 실제근무시간	-.00	-.05	.00	.05	.01	.09
경제적 취업동기	-.11	-.13*	-.03	-.04	.05	.07
비경제적 취업동기	.02	.02	.20	.23***	-.00	-.00
근무시간 유통성	-.04	-.05	-.03	-.03	-.04	-.03
근로가치관	.05	.03	-.10	-.05	-.09	-.07
가계소득만족	.18	.20**	.13	.16**	.06	.07
의사소통	-	-	-	-	-.04	-.05
여가만족	.02	.02	-.01	-.01	.06	.06
가사노동 분담	.01	.02	-.05	-.05	.05	.07
가족가치관	-.02	-.01	.01	.00	-.01	-.01
수직적 집단주의	-.06	-.05	-.01	-.01	-.10	-.09
수평적 집단주의	-.11	-.07	-.05	-.06	.09	.09
수직적 개인주의	.17	.14**	.08	.06	.04	.03
수평적 개인주의	.06	.06	-.04	-.04	-.00	-.00
직무만족도	.29	.22***	.29	.21***	.43	.28***
가정생활만족도	.26	.21**	.47	.33***	.29	.24**
R <sup>2</sup>	.59		.44		.30	
F	15.54***		8.48***		5.06***	

\*p<.05, \*\*p<.01, \*\*\*p<.001

개인주의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한족은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 특성이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문화성향과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다시 문화성향별로 국가간 차이를 분석해 보면 <표 7>과 같다.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는 세 집단 중에서 중국조선족이 가장 높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중국 한족이 가장 높으며 수평적 개인주의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은 집단적인 응집을 통하여 사회문화적 수평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은 비교적 뚜렷하나 전반적으로 문화성향 점수가 높지 않으며, 중국 조선족은 수평적 집단주의가 우위에 있기는 하나 수직적 집단주의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집단주의적 응집성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한족은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떠나 수평적 문화성향이 비교적 두드러짐을 알 수 있고, 수직적 개인주의도 점수가 높지는 않으나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중국조선족은 수평성이라는 중국 한족의 문화성향에 근접하면서도 집단주의라는 문화 성향에도 민감하여, 이주민족 혹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적응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모두 같은 동양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만큼 문화적 변천의 시기를 거쳤지만 아직까지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 대인관계를 교환관계로 보는 것보다 정(情)의 관계로,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 문화적 관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위계적인 경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식수준에서는 평등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한족과 조선족은 동일 국가 내에서 생활하지만 민족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한족은 조선족에 비해 더 자율적이고 더 개인중심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2.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 1) 인지 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먼저 인지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보면, 한국의 경우, 자아존중감( $\beta=.23, p<.001$ ), 직무만족도( $\beta=.22, p<.001$ ), 가정생활만족도( $\beta=.21, p<.01$ ), 가계소득만족( $\beta=.20, p<.01$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4, p<.01$ ), 경제적 취업동기( $\beta=-.13, p<.05$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표 9> 기혼취업여성의 긍정적 정서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 국		조선족		한 족	
	B	$\beta$	B	$\beta$	B	$\beta$
학 력	.01	.01	-.32	-.24***	.08	.09
연 령	.01	.11	.00	.03	.01	.13***
본인 소득	.01	.01	.07	.08	.00	.00
남편 소득	.04	.05	.02	.03	-.03	-.05
자아존중감	.38	.23***	-.06	-.03	.21	.14*
성역할 태도	-.01	-.01	-.01	-.01	.01	.01
주 실제근무시간	-.01	-.06	-.00	-.04	.01	-.12*
경제적 취업동기	-.04	-.05	-.07	-.09	.10	.13*
비경제적 취업동기	.04	.04	.32	.27***	-.07	-.06
근무시간 유통성	.00	.01	-.08	-.08	.05	.04
근로가치관	.07	.03	.06	-.03	.01	.01
가계소득만족	-.02	-.02	.01	.01	.04	.05
의사소통	-	-	-	-	.18	.19**
여가만족	.07	.07	.06	.06	.09	.09
가사노동 분담	.06	.08	.09	.10	-.01	-.01
가족가치관	.05	.03	-.32	-.18*	-.13	-.09
수직적 집단주의	.03	.02	-.02	-.02	.26	.21**
수평적 집단주의	.24	.14*	.04	.04	-.08	-.08
수직적 개인주의	.10	.08	.13	.10	-.12	-.10
수평적 개인주의	.02	.02	.02	.01	.01	.01
직무만족도	.29	.20**	.14	.10	.43	.26***
가정생활만족도	.11	.08	.40	.27***	-.07	-.05
R <sup>2</sup>	.41		.37		.27	
F	7.77***		6.57***		4.21***	

\*p<.05, \*\*p<.01, \*\*\*p<.001

났다. 그 중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가계 소득만족이 높을수록,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경제적 원인으로 취업하지 않았을수록 인지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영향변인들의 설명력은 59%였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변수가 삶의 질 인지에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고, 생활만족도나 경제적인 취업 동기 역시 중요 요인이며,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성향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 가정생활만족도( $\beta=.33, p<.001$ ), 비경제적 취업동기( $\beta=.23, p<.001$ ), 직무만족도( $\beta=.21, p<.001$ ), 가계 소득만족( $\beta=.16, p<.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영향변인들의 설명력은 44%였다. 즉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비경제원인으로 취업하였을수록, 직무만족도, 가계소득만족이 높을수록 인지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의 경우도 한국과 같이 생활의 다양한 만족도가 중요 요인이고 비경제적인 취업 동기 역시 중요 요인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수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족의 경우, 직무만족도( $\beta=.28, p<.001$ ), 가정생활만족도( $\beta=.24, p<.01$ ), 성역할 태도( $\beta=.23, p<.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변인의 설명력은 30%였다. 즉, 직무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인지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조선족과 같이 직무나 가정생활만족도가 중요 요인인 점은 공통적이나, 남편평등이 중요시되는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성역할태도 역시 매우 민감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긍정적 정서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긍정적 정서 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자아존중감( $\beta=.23, p<.001$ ), 직무만족도( $\beta=.20, p<.01$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4, p<.05$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인들의 설명력은 41%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적 정서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높은 점은 인지평가와 동일하며, 가정생활만족도가 아닌 직무만족도가 정서평가에서는 두드러진 영향을 주고, 수평적인 집단적 응집성을 지향하는 경우 삶의 질을 더 높게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 비경제적 취업동기( $\beta=.27, p<.001$ ), 가정생활만족도( $\beta=.27, p<.001$ ), 학력( $\beta=-.24, p<.001$ ), 가족가치관

<표 10> 기혼취업여성의 부정적 정서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 국		조선족		한 족	
	B	β	B	β	B	β
학 력	-.04	-.03	.10	.09	-.04	-.04
연 령	.01	.05	.01	.09	.01	.13*
본인 소득	.04	.05	.06	.08	.16	.21**
남편 소득	-.07	-.11	-.08	-.15*	-.17	-.25***
자아존중감	-.29	-.20**	-.20	-.11	-.26	-.14*
성역할 태도	-.15	-.13	.09	.08	.07	.05
주 실제근무시간	.01	.09	.00	.02	.00	.04
경제적 취업동기	.04	.06	-.01	-.01	.25	.23***
비경제적 취업동기	.12	.12	-.00	-.00	.02	.02
근무시간 유통성	.10	.12	-.02	-.03	-.00	-.00
근로가치관	.07	.04	.32	.20**	-.01	-.01
가계소득만족	-.02	-.02	.10	.13	.04	.03
의사소통	-	-	-	-	-.27	-.22**
여가만족	-.09	-.10	-.13	-.16*	.05	.04
가사노동 분담	-.05	-.07	.02	.03	-.05	-.05
가족가치관	-.07	-.04	-.11	-.07	-.05	-.03
수직적 집단주의	-.01	-.01	-.01	-.02	.06	.04
수평적 집단주의	.21	.15	-.01	-.02	.08	.06
수직적 개인주의	-.04	-.03	-.05	-.05	.21	.14*
수평적 개인주의	.22	.20**	.09	.09	-.27	-.21**
직무만족도	-.15	-.12	-.20	-.17*	.13	.06
가정생활만족도	-.24	-.21*	-.17	-.14	-.03	-.02
R <sup>2</sup>	.29		.20		.28	
F	4.30***		2.64		4.42***	

\*p<.05, \*\*p<.01, \*\*\*p<.001

( $\beta = -.18,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며, 변인들의 설명력은 37%였다. 즉 비경제적 취업동기가 강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긍정적 정서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도, 비경제적 취업동기의 영향이 높은 점은 인지평가와 동일하고, 학력이 낮은 경우 오히려 정서평가가 높은 점은 삶에 대한 기대치의 영향이라 추측되며, 근대적 가족가치관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족의 경우, 직무만족도( $\beta = .26, p < .001$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21, p < .01$ ), 의사소통( $\beta = .19, p < .01$ ), 자아존중감( $\beta = .14, p < .05$ ), 연령( $\beta = .13, p < .05$ ), 경제적 취업동기( $\beta = .13, p < .05$ ), 주 실제근무시간( $\beta = -.12,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변인들의 설명력은 27%였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적 취업동기가 강할수록, 주 실제근무시간이 적을수록, 긍정적 정서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인지평가와 동일하게 가장 강력한 영향 변인임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감은 한국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과 달리 수직적 집단주의의 영향력이 우월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취업동기 역시 조선족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3) 부정적 정서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부정적 정서 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가정생활만족도( $\beta = -.21, p < .05$ ), 자아존중감( $\beta = -.20, p < .01$ ),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20, p < .01$ )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변인의 설명력은 29%이다. 즉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적 정서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높은 점은 긍정적 정서평가와 동일하나, 직무만족보다는 생활만족이, 수평적 집단주의보다는 수평적 개인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즉 부정적 정서는 일상생활로부터 또한 개인주의로부터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 근로가치관( $\beta = .20, p < .01$ ), 직무만족도( $\beta = -.17, p < .05$ ), 여가만족( $\beta = -.16, p < .05$ ), 남편 소득( $\beta = -.15,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변인의 설명력은 20%이다. 즉 근로가치관이 인간관계 중심일수록, 직무만족도, 여가만족이 낮을수록, 남편 소득이 적을수록 부정적 정서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부정적 정서평가에서 만족도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점은 긍정적인 정서평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긍정적 정서평가가 비경제적 취업동기의 영향이 높은 점과 비교해 볼 때,

부정적 정서평가는 남편 소득 등 보다 현실적인 조건에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남편 소득( $\beta = -.25, p < .001$ ), 경제적 취업동기( $\beta = .23, p < .001$ ), 의사소통( $\beta = -.22, p < .01$ ), 본인 소득( $\beta = .21, p < .01$ ),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21, p < .01$ ), 자아존중감( $\beta = -.14, p < .05$ ),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14, p < .05$ ), 연령( $\beta = .13,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변인의 설명력은 28%이다. 남편소득이나 경제적 취업동기 등의 변인은 조선족과 유사한 경향이며, 이외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연령 등 다수 변인들이 긍정적인 정서평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수직적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상의 통계결과를 해석해 보면, 한국은 인지평가, 긍정적 정서평가, 부정적 정서평가, 중국 한족은 긍정적 정서평가, 부정적 정서평가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 취업여성의 삶의 질을 연구한 김정자(1999), 차경호(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가정생활만족도와 직무만족도의 경우, 세 집단에서 모두 다른 변인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측정되어 이순목(1997), 권기덕·윤창영(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그러나 직무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의 영향력 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학자들 마다 다르다. 박미석(1996)은 가정생활만족도의 영향력이 직무만족도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하는가 하면, 김미숙·조경호(2002)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가 가정생활만족도보다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취업여성의 삶의 질의 평가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소득만족이 한국과 조선족의 인지평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종민(2002), 이현송(2001)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경제적인 요인이 삶의 질의 평가에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일정한 물질적 부분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만족은 조선족의 부정적 정서평가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삶의 질이 제고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집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이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여가활동은 가족간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문화성향 요인에서는 한국은 인지 평가에서 수직적 개인주의, 긍정적 정서평가에서는 수평적 집단주의, 부정적 정서평가에서는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족 집단에서도 정서 평가에 문화성향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집단에서 비경제적 취업동기가 인지평가와 긍정적 정서 평가에, 한족 집단에서는 경제적 취업동기가 긍정적 정서평가와 부정적 정서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원인으로 취업할수록 삶의 질이 낮고, 기타 비경제적 원인으로 취업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적 목적으로 취업하지 않은 기혼여성들은 직업을 통한 자아성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역할 과중과 부담을 덜 느끼게 되며 따라서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조선족, 한족) 기혼취업여성을 상대로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여 취업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제시를 하고자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 요인인 인지 평가나 긍정적 정서평가에서는 한국은 중국 내 두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평가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족은 중국 조선족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국 조선족이 삶의 질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 심리적 변인, 가족 변인, 직업 변인, 문화성향 관련변인 중, 비경제적 취업동기를 제외한 기타 변인에서 모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변인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는 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관련변인 직무만족도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족은 조선족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실제근무시간은 한국,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의 차이로, 경제적 취업동기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차이로, 근무시간유통성은 한국과 중국 차이로, 근로가치관은 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변인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와 가계소득만족은 세 집단 차이로, 여가만족과 가족가치관은 한국과 중국 차이로, 의사소통은 한국, 중국 한족과 중국 조선족 차이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분담은 한국과 중국 조선족 차이로 나타났었다. 문화성향은 한국은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만이 가장 두드러지고 조선족은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강하며, 중국 한족은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 특성이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문화성향별로 국가간 차이를 분석해 보면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는 세 집단 중에서 중국조선족이 가장 높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중국 한족이 가장 높으며 수평적 개인주의는 중국조선족과 한족이 높다.

셋째, 관련변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유의미한 변수로는 직무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 평가에서 그 영향력이 더 뚜렷하다. 집단별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지 평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자아존중감 변인의 영향력이 뚜렷하고 경제적 취업동기, 수직적 개인주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조선족 기혼취업여성들은 가계소득만족, 비경제적 취업동기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중국 한족은 성역할태도 등이 중요 변인이다. 또한 긍정적 정서평가에서는 한국의 경우 자아존중감, 직무만족도, 수평적 집단주의 등이 중요 변인이며, 조선족은 가정생활만족도, 비경제적 취업동기, 학력, 가족가치관 등이, 한족은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수직적 집단주의, 경제적 취업동기의 영향력이 우월하게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평가에서는 한국의 경우 가정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수평적 개인주의 순으로 영향을 주며, 조선족은 근로가치관, 직무만족, 여가만족도, 남편소득 순이고 한족은 남편소득, 경제적 취업동기, 의사소통, 본인소득, 수평적 개인주의, 자아존중감, 수직적 개인주의, 연령 등의 순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적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한국 여성들은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삶의 질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소득 등의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취업여성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더욱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한국여성들의 삶의 질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여성 스스로 노력을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여성은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중국 조선족은 가계소득 만족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관련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가사노동 부담 등 한국취업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역시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세 집단은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평가 등에 있어서 가계소득 만족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도 경제적 요인이 삶의 질의 평가에 있어서 기초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직종별, 고용형태별 차별에서 오는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여성들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 주고 여성의 특성에 맞는 여성고용촉진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도 학교교육 이외에 자신의 직업에 알맞은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선족은 한족에 비하여 정서 평가에서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족의 이중적 문화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여성은 근대화, 현대화의 영향으로 가치관, 성역할 태도에서 근대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조선족은 그에 비해 전통 의식과 가치관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은 여성의 역할공정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공정한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여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성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조선족은 문화와 가치관 면에서 한족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외이주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유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해외한인사회에 대해 경제적 지원이나 학술적 연구에 그 목적을 두기 보다는 현지 중심 교육프로그램, 차세대 양성 등 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간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들이 한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조선족들의 수동적인 민족 정체성 유지 보다는 스스로 민족적 특성에 긍지를 갖고 그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간 비교를 진행한 결과 중국과 한국은 모두 문화성향, 근로가치관, 가족가치관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가치관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져 이를 사회적인 긍정적 구조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문화성향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은 각각의 문화성향 하위요인이 인지와 정서적 평가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정서적 평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에 비하여 한국의 문화적 복합성이 더 크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기혼취업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안정과 정체성 수립이 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요건 개선과 노력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나,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통합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지금까지 삶의 질의 평가에 중요시 되지 않았던 문화성향 요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한국과 중국 기혼취업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문화성향을 삶의 질에 접근시킨 시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추후에는 문화변인과 삶의 질간의 상관관계

연구가 보다 심도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가영희(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11(2)**, 163-186.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기정(2005). **맞벌이 가족 남편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0(2)**, 5-25.
- 강동식(1996). 삶의 질의 조사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2**, 347-372.
- 고보선 · 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고정자 · 김갑숙(1998).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1980).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등(2005). **재외한인여성의 생활실태 및 의식**. 경기도: 집문당. 88-90.
- \_\_\_\_\_ (2006). 한국여성과 조선족여성의 가족가치관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3-50.
- \_\_\_\_\_ · 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_\_\_\_\_ · 이선미(2007).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2)**, 119-131.
- 김기범(1996). **대인관계속에서 도덕성과 내집단 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비(1999). **기혼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81-106.
- 김명소 등(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5(2)**, 19-21.
- \_\_\_\_\_ 등(2003). **한국 남녀의 삶의 질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논문집 1**, 235-236.
-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4**, 139-166.
- 김분덕(2004). **도시중산층 중년여성의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균(2006).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2005). **직장인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영혜(2004). **유배우자 노인의 성역할태도, 가사노동분담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구(2006). **가정주부의 여가참여 및 여가계약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 외(1998).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2**. **여성학연구, 8(1)**, 1-24.
- 김지은(2006). **기혼여성의 가정내 리더십과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혜(2004).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1-17.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 박은아(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2)**, 35-36.
- 박종민(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45(2)**, 141-152.
- 박현옥 · 이한나(200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5(1)**, 83-93.
- 서지원(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림(2000).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실태**. **생활과학논문집, 1(1)**, 103-115.
- 서정아 · 한경혜(1998).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 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65-177.
- 신유근(1991). **한국기업의 전통 문화적 특성과 조직 유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혜선(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 가정관리 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미(2004). **주부들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지각수준,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관계**. **인간이해, 25**, 47-62.
- 양진성(2003). **한국과 미국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광희(1999).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태도 및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준하(2006).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정희(2004). **중년기여성의 폐경관리와 결혼만족도,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2)**, 261-269.
- 유병주(2000). **한국과 중국 근로자의 근로가치관 비교연구**.



- 한국북방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논문집, 203-211.
- 육근영(2006) 자아 일관성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19(3)*, 47-65.
- 이경화(2003).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건강상태가 중년기 위기 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만(2006). 한·중 근로자의 가치관과 직무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경영학회지, 19(4)*, 178-205.
- 이명신(1997). 주관적 삶의 질에 나타난 성차의 원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89-101.
- 이미경(2002). **기혼여성 미용사의 역할갈등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애(1999). 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 *여성연구, 7(9)*, 177-221.
- 이선미(1995). **부모 자녀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 외(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생활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이은정(2006). **중년기혼여성들의 댄스스포츠 참여에 따른 여가 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기·이은우·김재홍 공저(1998).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지역간 비교분석**. 서울: 집문당.
- 이정현(2000). **역할긴장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취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송(2001).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간의 관계. *한국인구학회지, 23(1)*, 91-117.
-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성욱(2006).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호(2003). **주부들의 여가생활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숙(2007).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배우자지지 및 모와 자의 애착특성이 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7).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35(5)**, 151-162.
- 정유진(2004). **기혼취업여성의 가정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1994).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궁호(1995).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229-283.
- 조명환·차경호(1999).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옥희(2004). **중년기 기혼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 사회학, 37(1)*, 91-115.
- 차경호(2004).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25(1)*, 105-139.
- 최미례(200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남제(1994). **농촌 가족의 결혼 관행 및 가족 가치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0(1)*, 69-89.
- 叶文振(예원편)(2006). 『女性學導論』 厦門:厦門大學出版社.
- 王凱·周長城(왕카이·쨌우창청)(2004). **生活質量研究的新發展: 主觀指標的构建与運用**, 國外社會學, 4
- Burr, W. R.(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logy -reis about the Family, 1*, 66-78.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02.
- \_\_\_\_\_ (1995).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_\_\_\_\_, & Suh, E.(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Farquhar, M.(1995). Definitions of quality of life: A taxonom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 502-508.
- Lucas, C., Diener, E., Suh, E.(1996). Discrimina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a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Mason, U. S.(1975). U.S. Women's sex-role ideology. 197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5)*, 1212-1219.
- Michalos, A. C.(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Social Indicators.
- Mirowsky, J.(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n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557-592.
- Mokgatthe, B. P.(1998).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life: The role of racial identity, collective self-esteem and gender-role attitude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28(1)*, 28-36.
- Mookherjee, D.(1992). Perceptions of well-being by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poplu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129-143.
- Myers, D.,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ear, J. P.(1983). A comparison of work and nonwork

-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7(1), 184-190.
- Olson, D. H. L. (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 Pleck, J. H.(1985). *Woking wives/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CA: Sage.
- Rice, R. W.(1984). Organizational work and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pplied Social Psychology*,1(5), 155-17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ston, N. J: Prinston University Press.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mith, P. C., Kendall, L. M. ,& Hulin, C. L.(1969).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Chicago: Rand McNally.
- Spreizer, E., & Snyder, E. E. (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1(29), 454-45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Young, K.J.(1983). Quality of life and persons with melana-ma:A pilot study. *Cancer Nursing*, 6, 219-225.
- 한국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
- 중국통계청.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 중국노동보장부. [www.mohrss.gov.cn](http://www.mohrss.gov.cn)

- 접수 일 : 2008년 11월 14일
- 심사 일 : 2008년 12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2월 16일